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감칠맛, 인생의 품미

맛있는 국물요리의 공통점은 감칠맛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이 맛있을 때 '입에 착 달라붙는다'는 표현으로 감칠맛을 높이 평가했다. 감칠맛은 짠맛, 단맛, 쓴맛, 신맛과 함께 다섯 가지 기본 맛 중 하나로 그 존재가 과학적으로 인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고 요정했다. 그 순간 떠오른 음식은 멸치 국물에 된장을 풀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였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 맛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감칠맛은 단순한 미각을 넘어서 문화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감칠맛은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혀에 있는 특수 수용체가 글루탐산의 특정 분자를 감지할 때 느껴지는 맛이다. 하지만 이런 화학적 설명만으로 감칠맛의 본질을 이해하기란 어렵다. 감칠맛은 고기, 버섯, 다시마 등에서 나온 풍미와 여운으로 경험되고 그 맛은 입 안에서 벗어나 음식과 관련한 미각을 남겨준다. 이는 단순한 미각의 만족을 넘어서 음식과 문화, 인간의 삶에 깊은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맛을 짠맛, 단맛, 쓴맛, 신맛 네 가지로 정의했다. 그는 인간의 감각을 물질적이고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 했으며 모든 존재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미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은 물질이 원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졌다. 이는 감각이 단순히 생리학적 반응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순간을 맛에 비유한다. 짜고 시고 쓰고 짠은 순간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달고 감칠맛 나는 순간들이 있고 이는 인생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되며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우마미', '카모메 식당' 등의 영화는 음

식을 통해 고통과 상실감 등을 치유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의 맛을 넘어서 인간 관계와 정서적 교감을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칠맛은 단순한 미각의 경험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연관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 안에서 위로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우리가 서로 다른 맛을 경험하고, 그것을 공유할 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교감을 나누며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다. 감칠맛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미감이 될 수 있다.

삶의 순간들이 늘 달콤하거나 감칠맛을 지닌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상실과 실망 그리고 분노와 고통을 맛보는 듯한 짠맛과 신맛 그리고 쓴맛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감칠맛처럼 진한 위로를 주는 순간들이 있어 우리가 버틸 수 있다. 감칠맛은 인생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며,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의 맛이 된다.

입맛을 잃기 쉬운 요즘 구수한 국물 한 그릇을 떠올려보자. 그것은 자연스럽게 소중함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곧 또 한번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시간을 갖는다. 감칠맛 나는 음식을 나누며 정을 주고받는 따뜻한 밥상에서 삶의 품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908년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이케다 기쿠나에는 독일 유학 시절 경험한 토마토, 고기, 치즈에서 느낀 독특한 맛이 다시마 국물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감칠맛의 과학적 정체를 밝혔다. 이 연구는 글루탐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을 분리해내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이를 '우마미(umami)'라 명명했다. 이후 글루탐산나트륨(MSG)의 개발은 일본인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으며 감칠맛은 오늘날 전 세계 요리에 중요한 맛으로 자리 잡았다. '우마미'라는 용어는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어가 되었다.

'우마미'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의 특별한 기억이 떠오른다. 10여 년 전 독일에서 와인 수업을 진행하던 마스터 소믈리에를 나를 향해 우마미를 설명해보라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뜨거운 자리

헤어져야 한다. 그런 와중에 교정을 떠나는 선생님도 있다. 요즘 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심하다. 그로 인해 비정규직 선생님들도 적지 않다. 연말이 되면, 어떤 샘은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나지만, 또 어떤 선생님들은 갓 졸업한 선생님들과 자리 경쟁해야 한다. 누구에게는 아무 관심 없는 책상 1개, 의자 1개 차지하는 1명 남짓한 자리겠지만, 그 자리는 젊은이들에게는 연말이 되면 감당해야 할 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간절한 자리다. 엉덩이 하나 붙일 곳이 없는 젊은이에게는 목구멍 뜨거운 자리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수많은 자리 중, 한두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간다. 직장에서는 직원, 사회에서는 아저씨, 집에서는 아버지, 심지어 각종 모임이나 계에서조차 총무나 회원 등등 그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위해 기꺼이 등이 휘도록 뜨겁게 살아간다. 마치 팬이나 자리돔처럼 그 자리를 빙빙 맴돌며 쓰러지지 않고 산다. 불어빵 굽는 자리, 시장 어물전 자리, 노점상 자리, 비록 어느 외진 고살 포장마차일지언정, 우리는 모두 그 자리가 있어서 웃고 울며, 그 자리가 무사해서 또 편히 잠을 잔다. 겉보다 더 착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서는 안 되는 곳, 생을 뜨겁게 달궈주는 자리다.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산다. 그 희망이란 높고 빛나는 자리다. 그래서 힘든 오늘도 어려운 일도 견뎌낸다. 하지만 그런 자리라고 꼭 고고한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고려나 조선의 왕, 근대의 위정자들이 앉은 왕좌는 찬란한 금빛보다 늘 피비린내가 가지지 않았다. 난 그런 근엄하고 권위 있는 자리보다 매일 아침 식

사를 준비하는 자리, 누군가를 출근시키기 위해 앉아야 하는 버스 운전석 자리, 청소부, 껌껌한 공장의 자리, 어느 집 가득 찬 분노를 치우러 가는 이의 작고 소소한 자리가 몇 배는 더 눈물겹게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비록 외진 구석일망정 시장 고살은 할머니에게는 왕좌보다 더 소중한 찬란하며 긴요한 자리다. 근엄하지 않아도 좋다. 미천한 자리일망정 소중하다고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이가 앉은 그 자리야말로 권위 있는 자리고, 작고 불품없는 자리일지라도 고맙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몇 배는 더 그 자리에 어울리는 훌륭한 사람이다. 멋지게 우승 트로피를 앞에서 높게 들고 있는 선수 못지않게, 뒤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아버지 자리, 어머니 낫은 자리가 더 높고 더 숭고하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애면글면 차지한 자리지만, 실상 영원한 자리는 하나도 없다. 어렵게 차지한 만큼 내려오는 길도 험난하다. 계급장을 떼고, 모두 아저씨 아주머니로 돌아와야 하는 퇴직의 자리, 누구도 반기지 않는 자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역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자리다.

요양병원에 길게 늘어진 자리, 승화원의 1000도가 넘는다는 화구, 그 뜨거운 자리, 그곳 또한 내가 들어가야 할 마지막 자리는 아닐까.

여하간 요즘 미치광이 한 녀석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무엇보다 사는 동안 앉을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 잘 구별하고 살아야지 싶다.

손살갈다. 꼭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배들이 속도를 낸다. 경주를 하나? 아니면 무슨 급박한 사고가 났나? 정신이 없다. 얼마 뒤, 배가 멈춘 곳, 주변엔 먼저 온 배들만 가득하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란다. 아니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란다. 넓은 바다라고 아무 곳에서나 고기가 잡히지 않는단다. 포인트가 따로 있단다. 그곳,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린 셈이다. 바다는 차갑다. 하지만 그곳 자리만큼은 정말 뜨거운 자리다.

어부들만 그런가. 좋은 자리는 차지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러 몸싸움하는 농구선수처럼, 우린 늘 자리 신경을 쓰고 산다. 밤마다 불을 밝히는 뜨거운 등대처럼, 우리 역시 자기 자리는 지키기 위해 등대보다 더 뜨겁게 불을 밝히고 살아간다. 이 얼마나 뜨거운 자리인가.

학기 말, 선생님들은 바쁘다. 성적처리와 생기부 작성으로 눈코 뜰 새도 없다. 또 1년간 정든 학생들과도

기고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적십자 봉사원들의 마음이 닿는 곳

의 후원자를 찾았다. 희생자 가족들을 향한 많은 관심이 모여 여행용 키트, 활동복 및 숙우, 양말 등 생필품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노란 조끼의 봉사원들이 추위를 이겨내며 만든 급식은 유가족들과 현장 관계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었다.

광주·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심리활동가들은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공황으로 향했고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펼쳤다. 활동가들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하루 두 번 헬터를 돌아다니며 안부를 물었고,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유품품 확인, 시신 검안과 인도까지 가장 깊은 슬픔의 순간에 유가족의 곁을 지키며 부족했다. 사고 이후 6일째부터는 유가족들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병행했다.

이 모든 일은 누군가의 비극을 나의 일처럼 느끼고, 함께 극복하겠다는 연대의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선결제, 자원봉사, 기부 등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함께 돕고 싶지만, 여러 제약으로 그러지 못해 좌송하다며 자신이 직접 구대한 생필품을 들고 현장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한 유가족은 익명의 쪽지를 통해 다함께 밭 벗고 나서 봉사하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우리의 비극이라 여기며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서시는 모습은 지역 사회에 녹아있는 인도주의 정신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보여주었다.

따뜻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7일간 유가족과 작업 관계자가 현장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헬터 150동과 담요 3965장, 샤워차량과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하였고 7320인분의 급식과 2153건의 심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해 준 1132명의 봉사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지금도 무안공항이 위치한 망운면 일대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합동 추모제에 재난심리상담 활동가를 파견하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피어난다. 대한적십자사는 유가족 곁을 지키며 슬픔을 위로하고 삶의 작은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은 바로 지금까지 적십자회비 모금을 통해 전달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의 작은 기부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적십자 회비 모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무탈하고 평온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社說

현직 대통령 첫 구속...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몇 차례 구속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 에 나와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거 인멸을 우려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인 비겁한 행동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한남동 관저에 숨어 일부 극우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비난을 샀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변호인단을 통해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이런 행동은 급기야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폭력을 촉발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도 충격이지만 폭동에 가까운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그 첫 관문이라고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활용해 탄핵심판 지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단호한 사법 집행을 나서야 한다.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에게 위협을 가한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현안 산적인 전남대 총장 임명 미취선 안돼

전남대 총장 자리가 탄핵정국에 맞물려 공석이 됐다. '글로벌 대학 30'사업 추진과 전남대병원 전공의 확보 등 대학은 물론 지역 사회와 관련된 현안의 차질이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립대 총장의 경우 현직 총장 임기 종료 전에 신임의 임명을 결정해 업무 공백을 없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몇몇 대학의 총장 임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대학들이 혼란을 겪었다.

특히 국립대 총장은 직선제로 뽑기 때문에 당선자를 후보로 올리면 이들 정부가 심의·결정하는 구조였으나, 현 정권 들어 1·2위 후보를 올리도록 하고 이 중에서 정부가 선택하는 바람에 국립대 자율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가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 제21대 정성택 총장이 지난 14일 임기를 마쳤지만 신임 총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해 9월 이근배 교수와 송진규 교수를 선출하고 논문·연구윤리 검증을 거쳤다. 이어 12월 12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면서 총장 임용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현재 전남대 총장은 '글로벌 대학 30'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대학의 생존 및 미래 경영과 직결되는 사업을 지휘하는 한편 전남대병원의 전공의 확보 및 응급의료 시스템 회복을 통해 지역민의 의료 복지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 국립대의 현안은 대학 행정의 율타리를 넘어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는 전남대 총장 공백을 신속히 마무리해줄길 바란다.

無等鼓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나눔이 있다. 일반적으로 나눔은 물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나누기도 한다. 어떤 이는 봉사를 통해 그 의미를 실천하기도 한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물질이든 봉사든 시간이든 나눔은 귀하고 가치있는 일이다.

오늘날에는 예술로 나눔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 예술적 재능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미적 가치를 일정 부분 함께 공유한다는 뜻일 게다.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예술적 재능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뜻깊은 행위이다.

‘푸름 나눔’

올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아트피플 푸름 나눔전'이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현대미술연구소(대표 김허경),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승규)이 공동주관한 이번 푸름 나눔전(16일~22일)은 창의적인 작품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교류하며 따뜻함을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를 제안한 정승규 관장은 "시국도 어수선하고 작가들도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젊은 작가들의 미술담

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작품을 매개로 의견도 나누고 전시도 여는 방안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일정 부분 향후 미혼모의 집인 '성모의 집'에 기부된다. 산모와 아이가 생활하며 자립 기회를 모색하는 성모의 집은 '생명은 희망'이라는 가치를 도모하는 곳이다. 나눔전 출품 작가는 김25, 예술적 재능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미적 가치를 일정 부분 함께 공유한다는 뜻일 게다.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예술적 재능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뜻깊은 행위이다.

렉터 등 미술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아트피플 토크' (21일)도 펼쳐진다.

80년 5·18을 경험한 광주 시민들에게 일련의 비상계엄 사태는 많은 것을 사유하게 한다. 이번 나눔전이 따뜻한 기부 외에도 불안한 시국을 견디는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 전시를 공동 기획한 김허경 아시아현대미술연구소 대표는 행사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올사년, 예술가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들과 교류하게 된다면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3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채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디자인실	220-0536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지털부	220-0697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